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617

2008년 8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영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조 애 리

영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Understanding of the Target Culture on Improvement of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2008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조 애 리

영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덕 만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조 애 리

조애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8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 ii

I.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의 방법 ····· 3

II. 이론적 배경 ····· 4
A. 문화의 정의 ····· 4
B. 문화와 언어의 관계 ····· 6
C. 문화교육과 영어교육과의 관계 ····· 9

III.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문화지도 방안 ····· 13
A.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문화적 요인 ····· 13
B. 인터넷을 통한 문화지도 방안 ····· 18
C. 원어민을 통한 문화지도 방안 ····· 27

IV. 문화지도에 있어서 고려할 점 ····· 35
A. 문화지도에 있어서의 교사의 태도 ····· 35
B. 문화학습에 있어서의 학습자의 태도 ····· 37

V. 결론 ····· 39

참고문헌 ····· 41

ABSTRACT

Effects of Understanding of the Target Culture on Improvement of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By Ae-ri Cho
Advisor: Prof. Duk-man Lee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necessity of teaching and learning the target cul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nd to demonstrate the effects of comprehension of the target culture on improvement of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Culture includes several factors such as customs, beliefs, art, attitude, and way of life that people in a particular group or society share. A language itself reflects various aspects of its society. Therefore, appropriateness of a particular utterance needs to be judged in the social context in which language is used. Communicative competence includes linguistic knowledge as well as sociocultural knowledge. So, the understanding of different sets of culturally determined rules is beneficial for successful communication. Understanding the target culture will motivate learners to understand and use the target language appropriately in social contexts.

The 7th curriculu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troducing foreign culture into the language classroom. It is assumed that the lack of target culture information impedes successful communication. Korean students have been learning English in an EFL situation, and most Korean students and teachers of English is exclusively dependent on English textbooks to acquire the cultural factors of English.

In this thesis, firstly,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is discussed. Secondly, several ways to promote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through the learning of language-related culture in the classroom are proposed. Finally, healthy attitudes of teachers and students toward other cultures are suggested for the effective learning of a language's culture and thereby of the language itself.

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어를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화적 내용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실에서 영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도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최근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상황에 있는 교육전문가들과 교사들은 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외국어 학습자들이 목표문화권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목표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목표문화권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화상 두 사람간의 상호이해와 존중이 생겨나는 데는 끊임없는 의견교환과 의미협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의사소통의 과정이라고 한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이며, 언어형태에 대한 정확한 사용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의사소통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화자들은 서로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들을 단순히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한 언어의 문화에 대해서도 의미를 교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그 언어가 형성되는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함께 학습한다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즉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언어가 형성된 나라의 사회 전반적인 문화요소도 함께 습득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지도의 필요성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제 7차 교육과정은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를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여 영어 교육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총괄 목표와 구체 목표로 분류해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01: 23).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가.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나.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재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한다.

다.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라. 외국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른다.

위의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영어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 목표는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습자들에게 목표문화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영어를 학습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언어란 그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사회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하는 것이므로, 언어를 학습하는 데는 그 언어가 형성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영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영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구조와 기능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가 사용되어 지고 있는 그 사회의 문화까지 같이 학습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어교사들은 영어형태와 기능과 함께 영미 문화적 요소들도 반드시 함께 가르쳐야 한다.

즉, 이 논문에서는 영어교육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인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를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경험하게 될 여러 문화적 차이들을 좁혀줄 수 있는 영미문화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찾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적합하고 올바른 영어를 구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B. 연구의 방법

본 논문에서는 먼저 영어학습의 배경이자 궁극적인 목표인 영미문화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문화의 개념과 문화지도의 필요성 등 그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여러 문화적 요인들에 대해 고찰해보고, 다양한 인터넷 자료들과 원어민을 통한 협동수업에 의한 효율적인 문화지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A. 문화의 정의

1. 문화의 개념

문화에 대해 학자들마다 내리는 정의는 너무 많고 다양해서 최근까지도 문화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정의에 대해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를 정의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의 핵심인 문화 지도의 내용과 방법을 위해서는 문화의 개념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문화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데에는 학자들마다 그 관점을 달리하겠지만, 우리말 대사전에서는 '인류가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 놓은 정신적, 물질적인 일체의 성과. 의식주를 비롯하여 기술, 학문, 예술, 도덕, 종교 등 물질적인 문명에 대하여 특히 인간의 내적 정신 활동의 소산을 말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H. Douglas Brown(1994: 176)에 의하면 문화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며, 사람들을 다함께 결속 시킬 수 있는 접착체와 같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문화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특징 지워줄 수 있는 관습, 기술, 예술, 그리고 도구등과 같이 정의되어 질 수 있다.

또한, Kluckhohn(1944)는 문화를 사람들의 사고, 신념, 예술양식이며 특정한 집단이 공유한 학습의 보고로 간주하고 있다.

Chastain(1978: 388)은 문화를 소문화(small culture)와 대문화(large culture)로 분류하였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small culture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의미하고, large culture는 그 사회에 대한 중요한 산물이나 기여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정의들과 같이 문화란 한 사회 그리고 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 가치 체계의 표현이며 생활 방식이다. 한 사회가 어떤 독특한 특

성을 지니게 하는, 그래서 다른 사회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구성원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문화인 것이다.

즉 문화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활양식이며, 인간 생활의 모든 면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의 기능은 인간사회를 유지시켜주며, 그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는 행동양식과 신념 그리고 가치체계를 규정해준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는 학습되어질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적 상징과 의미들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공유되지만, 그 의미가 너무 광범위해서 각각의 다른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회나 국가는 서로 다른 문화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문화는 그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에 크게 영향을 끼쳐 자신의 문화권 안에서 생성된 사고를 가지고 현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타문화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다.

2. 문화의 성격

문화는 특정한 하나의 사회 그리고 그 사회가 이루고 있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 가치관의 산물이며 생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사회는 어떤 독특한 특성들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특성들은 다른 사회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며, 각 구성원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문화이다.

또한 하나의 국가 안에서도 개인을 비롯한 서로 다른 집단 간에도 상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영원한 하나의 단일 체계로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의 접촉으로 기존의 문화가 소멸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는다. 이렇듯 다양한 변화를 통해 문화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성격들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문화의 성격에 대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의 성격들은 문화에 대한 정의들과 각 이론들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문화의 개념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문화의 성격들에 중점

을 두겠다.

첫째, 문화는 학습되어질 수 있다. 문화가 학습된다는 것은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문화는 변한다. 따라서 시기가 변할 때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셋째, 문화는 인간 삶의 보편적 생활양식이다. 문화가 없는 인간 사회나 나라는 없다. 따라서 문화 양식은 보편적 인간 삶의 욕구 및 생활 조건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넷째, 문화와 언어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한다. 문화는 대부분 언어를 통해 전달되어 지며, 문화양식은 또한 언어에 반영되어 진다. 마지막으로 문화는 그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나타내준다. 즉 인간사회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가 매우 다르며, 이러한 문화는 다른 사회나 국가와 구별 짓게 해주며 결국 그 사회를 결속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해주는 것이다.

B. 문화와 언어의 관계

1. 문화와 언어의 상관성

언어는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쓰는 음성적 또는 문자적 수단이며 그 음성이나 문자에 대한 사회 관습적인 체계라고 정의될 수 있다. 비록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하다.

Saussure(1916)는 언어의 개념을 parole(언어의 수행능력)과 langue(지식 언어)로 구분하고 있다. 즉 parole은 개인이 의사표현을 할 때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능력이고, langue는 음성과 의미가 결합된 사회적으로 정해진 체계로 간주하고 있다.

Edward T.Hall(1959: 93)은 “Communication is culture and culture is communication.” 즉 의사소통은 문화이고 문화는 곧 의사소통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또는 그 나라의 문화를 습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Brown(1994: 177) 또한 “언어습득은 곧 문화의 습득”이라고 정의하면서 제 2언어 습득은 또한 제 2문화 습득이라는 점을 역설하였다.

Whorf는 언어결정론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언어적 차이가 문화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Whorf에 따르면 언어적 차이가 서로 다른 문화적 의미를 형성하며, 이것은 곧 독특한 세계관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상대성은 언어적 범주와 문화적 신념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기며, 언어가 이러한 문화적 신념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신념은 그 문화 안에서 생겨나는 언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Carroll 1973).

또한 Crawford-Lange and Lange(1987: 258)은 문화는 언어와 분리될 수 없으며, 반드시 언어학습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언어와 문화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문화는 언어와 분리해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 문화적 지식은 결국 목표언어에 대한 능력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2. 영미문화 교육의 필요성

우리가 외국어를 가르치고 학습한다는 것은 그 언어가 상징하고 있는 문화 또한 가르치고 학습해야한다. 이는 외국어로써 영어를 가르칠 때도 예외가 아니다. 영어가 점차적으로 국제어로써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 수단이 되어가고 있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일본인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은 아마도 그들 자신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도 매우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어 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의 대화에서 영미문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영미문화권의 사람과 한국 사람이 대화를 한다면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로 인해 의견차이가 반드시 생겨날 것이다. 위의 두 경우는

모두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서로 다른 언어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접촉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공용어인 영어와 영미문화에 대한 지도는 필수적이다. 문화 없는 영어지도는 과학기술 분야와 같은 전문분야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불가능하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용어들은 대개 문화 중립적이지만, 일상생활의 어휘들은 매우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미문화권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서는 영미문화적인 요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Chastain(1978)은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즉 외국어 교육이란 언어적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까지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다른 나라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은 언어기능뿐만 아니라 문화적 습관의 이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목표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화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언어기능에 대한 이해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언어학습에 있어서 문화를 포함시켜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문화 그 자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때문이다. 현대의 상호의존적인 시대에서 이(異)문화간에 대한 이해는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 중 하나이다.

Rivers(1981)도 외국어 교육에 대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일곱 개의 항목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4가지 항목이 목표언어에 대한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To develop the student's intellectual culture through the study of a foreign language
- To increase the student's personal culture through the study of the great literature and philosophy to which the new language is the key
- To give students the experience of expressing themselves within another framework, linguistically, kinetically and culturally
- To bring the students to a greater understanding of people across national

barriers, by giving them a sympathetic insight into the ways of life and ways of thinking of the people who speak the language they are learning

또한 Canale and Swain(1980)은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은 다음의 4가지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어휘나 문법등 주로 언어 형태에 관한 지식을 가리키는 grammatical competence, 담화의 유형과 특징들을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discourse competence, 사회 문화적 규범에 적합하게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있는 sociolinguistic competence,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의 언어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중단될 경우 의사소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 활용 능력인 strategic competence가 이에 해당된다. 처음의 두 가지 범주는 주로 언어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을 일컬으며, 나머지 두 범주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의 기능을 강조한 지식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들 그 이상이 필요하다. 심지어 수용적인 기능인 읽기에서도 언어적 기능과 문화적 지식이 모두 필요하듯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능력과 문화적 배경지식이 모두 필요하다. 즉 실제 대화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문화지도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C. 문화교육과 영어교육과의 관계

앞에서 언어와 문화는 서로 뒤엉켜 있으면서도 질서 정연한 체계들로 불가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영어 교육은 그 언어의 모체인 영어 문화를 교육하는 일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한 문화의 유형, 관습, 생활양식, 세계관 등은 본질적으로 그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란 영어의 단어와 문법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대화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과 그 영어가 지닌 사회문화적인 변수들을 올바르게 조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Gee 1988: 216).

한국어에서 영어로 전이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한국 문화에서 영어 문화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영어를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 인지적으로 불가능하다(Szalay & Fisher 1979: 60). Lakoff(1976: 207)는 언어 연구의 모든 분야는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것, 즉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조건 지워주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어 교육과 영어 문화 교육의 불가결한 결속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필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학습자로 하여금 영어 능력과 사회문화 능력을 동시에 갖추도록 영어를 숙달시킴과 동시에 영어의 사회문화적 유형을 가르쳐야 하는 이중적인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영어 화자들과 생활을 할 때, 언어적인 실수는 대개 너그럽게 묵인되지만 화행(speech acts)의 규칙을 어기면 흔히 지적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은 결국 사회문화적인 오류(errors)들에 매우 민감하게 된다.

자국의 문화는 생물학적으로 계승되지 않고 자국 문화권 내에서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인 문화전승을 통해서 획득된다. 마찬가지로 영어 문화의 습득은 낯선 문화에 적응해 가는 문화접변의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 문화접변 과정에서 실패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화행의 규칙들에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한다(Gee 1988: 220). 영어 문화를 학습하여 영어 문화에 접변하는 책략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가장 전형적이고 고유하고 도전적이면서도 가장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영어 문화 요소가 바로 영어이기 때문이다.

Lander(1966: 130)는 인간이 습득한 모든 습관들을 포함한 대집합이 문화이고 언어는 그것의 부분집합이라고 하여 부분집합을 다루는 것으로부터 일반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사회의 언어는 그 사회와 문화의 맥락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어휘 면에서만 보더라도 단어들의 함축된 의미(connotations)들이 문화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다양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영어 교사는 영어 문화 교육에 관한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격리된 단어들은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 매우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들에서 사용되어온 단어와 관련된 개념

은 그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 영역만큼 확대된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소년'과 '남자'는 영어로는 각기 'boy'와 'man'으로 번역되지만 한국어의 '소년'이나 '남자'가 지닌 사회문화적인 개념들의 집합은 영어의 'boy'나 'man'이 지닌 개념들의 집합과 큰 차이가 있다. 단어들의 개념은 그 문화의 관습과 가치 체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사전은 단어들의 사회문화적 경험의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어를 가르치는 한국인은 잘 알고 있는 한국어의 단어와 형식들이 영어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가르쳐 가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영어를 학습할 때 영어외적인 지식, 즉 그 세계에 대한 지식만이 그러한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 줄 안내자가 될 것이다. 그러한 지식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 사회문화적 사항들로 이루어진다(Goodenough 1964: 36).

영어 교실의 제한된 맥락에서도 학습자는 모국어 화자가 해주는 칭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영어 문화에 대한 지식은 영어 능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 문화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영어 표현을 영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지 않으면 영어 모국어 화자와 대화를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영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영어 학습자는 외국의 문화를 자국어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곧바로 영어 사용 집단의 사상과 행동으로 이해하는 영어 문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한편의 시를 이해하듯이 영어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을 충분히 이해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영어 단어들의 외연(denotation)과 내포(connotation)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Nostrand(1956: 300)는 영어 교육에서 영어 문화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 들고 있다. 첫째, 문화는 완전하게 통합되어 있는 총체(integral whole)이기 때문에, 영어 문화의 산물인 영어와 문예 작품은 그 나라의 문화적 주제들, 즉 개념과 정서의 체계에 비추어 보아야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적 주제들로서는 언어로 표현되는 원리와 가치들이 있는가 하면 또 상상력이 필요한

예술에서 표상적인 상징들로서만 표현되는 사상이나 정서와 같은 포착하기 힘든 대상들이 있다고 한다. 둘째, 영어와 문예를 학습할 때, 학습자는 학습 과정에서 야기되는 상식적인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영어권 사람들의 가치나 세계관이나 장단점에 관한 단순하지만 분명한 일반화를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학습자로 하여금 영어 문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실제적인 일반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영어권의 사람들과 그들의 사고 유형과 생활 방식을 통해서 그 국민의 특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본적인 성격과 신념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그 문화를 이해하는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올바른 언어활동은 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문화와 언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서 영어를 학습하면 그 문화 내용은 저절로 습득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의 특징들이 한국어의 특징들과 크게 다르듯이 영어의 문화 내용은 한국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언어와 문화가 불가분하기 때문에 영어는 본질적으로 영어 사용국의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는 영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고 영어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체계적인 영어 문화 교육을 통해서 달성되어야 한다.

Ⅲ.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문화지도 방안

A.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문화적 요인

이(異)문화간 초기단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화자가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실수 없는 완벽한 문장을 발화하더라도 종종 화자 자신은 청자를 이해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두 대화자간의 문화적인 차이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두 대화자가 공유한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문화적 요인을 살펴보고 문화의 차이와 문화적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야기된 의사소통의 실패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異)문화간의 의사소통에서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화자들은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해 비슷한 의미조차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게 된다. 대화자들의 의사소통 행위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점들은 상당히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공유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와 같이 문화요소들은 언어와 사실상 분리될 수가 없다. 즉 언어는 문화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외국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학습자라도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데에는 매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1.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

문화적 측면에서 서로 충돌이 생기면 이(異)문화간의 의사소통은 쉽사리 단절될 수가 있다. 서로 다른 문화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언어로 서로 대화를 시도하더라도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들을 공유한다 할지라도 그 표현의 전제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따라

서 이는 각자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대화자들이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문화적 차이는 결국 전체 의사소통의 실패를 야기할 것이다.

예를 들어 “It's two o'clock in the morning.”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의도하는 한국인 학생은 거의 “It is two o'clock at night.”로 잘못 표현한다. 한국에서는 “02:00 a.m.”를 새벽 2시 즉 밤으로 생각하여 “It is two o'clock at night.”이라고 잘못 발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예로 한국인들은 시험을 치른다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 모국어 간섭현상으로 인해 “I see an exam.”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I take an exam.”이 영어로는 정확한 표현이다. 이는 한국문화에서 통용되는 표현들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서 의사표현을 시도한 것이다.

특정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표현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이 표현들이 문화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어를 문자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있어서 자주 혼란을 야기 시킨다. 예를 들어, 한국인 남학생이 ‘boy friend’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girl friend’가 있다고 하면, 그녀가 반드시 데이트상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 남학생은 단지 그의 친구들을 두 가지 범주 즉 ‘male friends’와 ‘female friends’로 구분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한국적인 사고방식에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표현이다. 물론 이러한 표현들로 인해 의사소통의 단절을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다른 문화차이로 인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매우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너무 모국어문화의 규범에 맞추어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학생들은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목표문화의 규범들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2. 문화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목표문화지식의 부족은 의사소통 단절에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목표문화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이주민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모국어 문화를 통해 해석한다. 즉 이주민들은 사실상 모국어문화의 틀 안에서 영어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목표문화에 대한 부족으로 인한 두 문화 간의 차이는 실제 의사소통상황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대화 상황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대화자들이 상대방의 문화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화를 포기하기 쉽다.

Disman(1982: 71)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그들이 속해있는 환경을 그들의 모국문화의 관점으로 해석한다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영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모국어에 크게 의존한다. 영어로 그들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들의 모국어와 관련지어 추론함으로써 발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목표언어에서 특정단어의 표면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문화요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a. The thought that I should get another job distressed me again.

b. When I thought that I had to look for a different job, I felt headache.

‘another job’과 ‘different job’은 ‘다른’이라는 뜻을 한국어와 영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직업을 잃게 된다면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영어에서 ‘another job’은 제 2의, 즉 부차적인 직업을 의미한다. 그래서 ‘another job’을 사용하면 현재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단지 부차적인 직업을 구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different job’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직업에 싫증이 나서 전혀

다른 종류의 직업을 찾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위의 예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문화적 의미에 대한 고려 없이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에서 야기된 실수이다.

목표언어를 사용해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 우리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모국어의 관점에서 목표언어를 표현한다. 그러나 각각의 문화마다 상이하고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단어를 표현한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다. 즉 언어의 용법은 문화마다 매우 다르다. 따라서 목표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는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문화적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학습한 모든 언어적 요소들을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을 하고자 배운다. 즉 학습된 모든 언어적 지식들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비록 언어의 의미적 차이는 매우 적다고 할지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그 문화적 차이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Duquette 1985: 524).

예를 들어, ‘yellow’와 ‘jaune’이 두 단어를 살펴보자. 영어 ‘yellow’는 특정한 색인 노란색과 ‘선정적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어 ‘jaune’는 같은 색인 노란색과 ‘아픈’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렇듯 단어가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의미는 같지만, 각각의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달라 상황에 따라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위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적인 능력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언어적 능력은 문화가 내포된 유의미한 상황 안에서 길러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습되어진 목표언어는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어 그 적절성을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은 목표언어를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사회문화적 지식을 키워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적 경험의 부족으로 대화상에서 야기된 학습자들의 몇 가지 오류를 살펴보자.

IM(intended meaning): To that comment, I didn't know what to answer.

a. I don't know what I say about that words.

b. I don't know how to answer to the word.

c. I don't know how to respond to the remark.

위의 예는 학습자들이 습득한 문화적 요소들을 실제 상황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의 부족으로 야기된 것이다. 우선 위의 3가지 표현들은 모두 동사시제에 관련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 학습자들에게는 과거와 현재 시제에 대한 경계가 뚜렷한 것이 아니다. 명시적인 문법적 설명으로 학습자들이 과거와 현재 시제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화 상황에서는 오류를 출현시킬 가능성이 크다.

둘째, 한국어에서 문자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how to answer'는 위의 의도된 의미를 가지는 영어식 표현이 아니다. 위의 오류들은 학습자들이 단어와 표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어적 지식들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게 되면 빈번한 오류를 출현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준다.

다음의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IM: By the time the war came to an end, I was penniless.

a. When the war was over, I was broke.

b. I was a penniless person, when the war finished.

c. When the war has been over, I was money-less.

d. After the war, I was penniless without any property.

위와 같이, 한국 학생들은 전쟁이 끝이 났다는 표현을 'to be over', 'to have been over', 'to be finished' 그리고 'after'로 나타내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이 4가지

표현이 모두 'to end the war'와 'no more war'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영어 'finish'라는 동사는 사람이 직접 그 전쟁을 끝낼 수 있을 때만 사용한다. 또한 'After the war'는 전쟁이 끝난다는 의미와는 약간 다른 의미인 '전쟁의 결과로서'라는 'in the wake of the war'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penniless' 표현을 살펴보면, 한국인들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penniless without any money'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penniless person'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문화가 반영된 것이다. 즉 학습자들에게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위의 표현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서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충분히 연습하고 실제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위와 같은 오류의 출현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학습자들은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이러한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휘와 문법구조까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나 구조의 사회문화적 또는 상황적 범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듯 학습된 목표언어의 단어, 문법, 문장 등을 포함한 언어적 형태들은 실제 의사소통에서 사용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그들이 학습한 목표언어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다면 사회문화적 지식까지 더해져 유창한 의사소통 능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B. 인터넷을 통한 문화지도 방안

1990년대 이후 정보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크게 발전하고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가 되면서 그 활용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통신 수단인 인터넷은 새로운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어교육도 정보화 시대에 맞춰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

을 통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해하고, 그 정보를 자신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 기존의 컴퓨터 보조학습(CAI: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 쌍방향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문자, 그림,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에서 가장 획기적인 일은 학습자들이 정보를 접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무한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 인터넷의 활용은 인터넷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새로운 기능과 특성을 잘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수업방식과 다른 형태의 수업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진정성 있는 수업자료를 통해 수업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1.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의 특징

최근 급속히 발전한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활용능력은 필수적인 기능으로 간주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도구로써 인터넷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 이렇게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환경은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영어교육에 있어 교수-학습의 매체로써의 인터넷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을 영어교육에 활용할 경우 나타나는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주입식 교수-학습과는 달리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목표문화에 대한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인터넷은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할 내용을 선택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게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이렇듯 학습자가 선택한 학습을 수행하게 함으로 학습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개별화학습도 가능하다.

둘째, 인터넷을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최신의 문화자료를 접하고 습득할 수 있다. 즉 인터넷의 다양한 시청각자료들은 학습자에게 목표문화권의 문화, 사회, 정치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특히 교실 밖 상황에서 영어 습득이 어려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사회변화가 반영된 영어권 문화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 학습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셋째, 인터넷은 원어민들과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인터넷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며, 시・공간을 초월해서 목표문화권의 원어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준다. 즉 원어민들을 통해 영미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넷째, 인터넷은 학습자들에게 많은 언어적 입력을 제공해 주는 데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다. Krashen(1994: 278)은 언어학습에 있어서 목표언어에 대한 언어적 입력을 충분히 제공해주면 학습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Input Hypothesis를 주장하였다. 즉 교사는 교실상황에서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목표언어와 문화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고 학습자들은 실제적인 언어적, 문화적 입력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은 학습자의 내적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인터넷은 90%이상이 영어로 되어 학습자가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 속에서 영어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내재적인 동기를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통한 정보에 대한 접촉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학습자들은 목표언어를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문화권의 역사, 문화, 정치, 지리, 가치관, 생활양식 등 실제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2. 인터넷을 통한 문화 유형과 교수-학습 방법

Lafford and Lafford(1997)는 인터넷상에서의 영어권 문화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영어교육에 적극 활용하면 문화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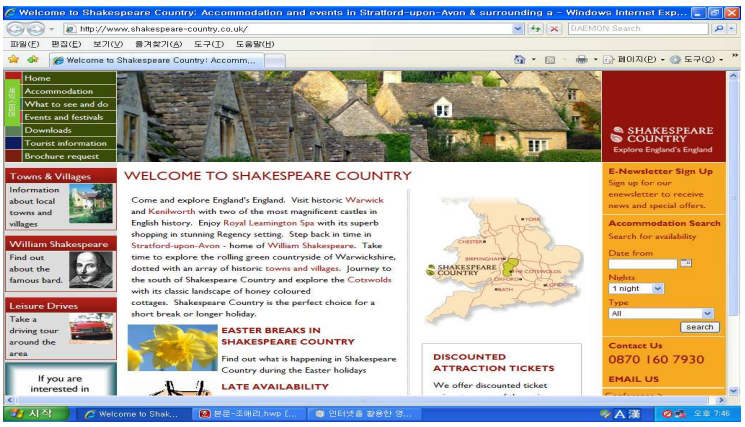
첫째, 정보 문화 (information culture)로 인터넷에는 영어권 문화에 대한 참고 정보가 무한하다. 학습자들은 백과사전, 어학사전이나 인물사전 등을 담고 있는 사이트와 일간 신문 사이트를 통해 문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그림-1> 정보 문화 유형(http://bbc.co.uk/)

둘째, 행위 문화(behavioral culture)로 인터넷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행동과 언어적 행동에 관한 정보로 가득 차 있다. 학습자들은 영화나 일간 신문 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2> 행위 문화 유형(http://nytimes.com/)

셋째, 업적 문화(achievement culture)로 인터넷은 미술관, 박물관, 문학작품, 여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처럼 업적 문화는 학습자들이 실제 영어권 문화를 방문하지 않고서는 습득하기 어려운 문화제공을 학습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림-3> 업적 문화 유형(http://shakespear-country.co.uk/)

이와 같이 인터넷은 전통적인 교실 수업 방식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폭넓은 영어권 문화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Brian Butler(2002: 3)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인터넷이 영어권 문화 교수-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세계를 교실로 가져오기이다. 영어 교사들은 실제적인 영어권 문화 자료를 얻는데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은 교수-학습에 있어서 교사와 학습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신 영어권 문화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⑴ 다양한 주제에 따른 영어권 문화정보 수집

정보의 바다로 불리는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주제로 분류된 자료들 속에서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 수업자료와 심화·보충자료를 제작하고 과제를 부여하는 데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신의 학습 목적에 따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⑵ 시대에 민감한 문화 정보원

대부분의 전통적인 자료는 최근의 정보를 자세히 제공할 수 없지만, 인터넷은 교사 또는 학습자에게 변화하는 최신 문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영어 교사는 인터넷을 통해 최신 정보를 학습자에게 소개해 줄 수 있으며, 풍부한 문화적 경험 또한 제공할 수 있다.

⑶ 토론 그룹 및 기타 온라인 공동체 정보 자료

토론 및 기타 온라인 공동체 정보 자료는 대다수 공동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최근의 문제점을 학습자에게 소개해 줄 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학습자들은 토론을 통해서 딱딱한 교과서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

⑷ 학습자 관심 정보 제공

인터넷을 통해 학습자들은 그들의 필요와 흥미에 따라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음악, 영화, 스포츠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교실 수업 활동 지원하기이다. 인터넷을 활용해 영어권 문화 정보를 습득해서 수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자료는 수업시간이나 그 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영어권 문화 지도를 할 때 교사는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 과제를 완수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안내해서 수업내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한다.

셋째, 교실을 세계로 개방하기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교사와 학습자들에게 교실을 개방하게 해 준다. 인터넷을 활용해 문화지도 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다른 영어 교사들과 학습자들도 이를 참고할 수 있다.

3. 인터넷을 활용한 문화지도 방안

a. 월드와이드 웹을 통한 문화 지도

월드와이드 웹(WWW: World Wide Web)은 인터넷상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링크(link)구조로 연관시킨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면 웹에 연결된 여러 곳의 웹 서버에 있는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즉 웹 서버 속에 있는 문자, 음성,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을 볼 수 있고 다운로드해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있다. 즉 웹이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광범위한 자료가 인터넷이라는 곳에 모여 있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고가 가능하다.

월드와이드 웹을 이용하는 문화지도 방법은 각종 사이트를 방문하면서 영어문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학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교실 밖을 넘어서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웹을 통한 인터

넷은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문화지식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광범위한 양의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 준다.

월드와이드 웹을 통해 원하는 사이트의 주소만 입력하면 쉽게 정보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목록들을 클릭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월드와이드웹을 교육에 활용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수업하는 교실과 현실생활을 연결함으로써 벽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며(Benson and Fodemski 1996), 웹에는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춰서 자료를 구하기가 쉽다.

b. e-mail을 통한 문화지도

e-mail은 인터넷을 통해 전하고 싶은 내용의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전자 우편이다. 전자 우편은 통신망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된다. 특히 e-mail은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언어에 대한 정확성을 키워줄 수 있다.

Susan(1994)은 학습자들이 전자 우편을 통해서 목표문화권의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게 되면 상호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며 또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서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을 통해서 목표문화권의 사람들과 메일을 주고받음으로서 목표언어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목표문화까지도 간접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또한 e-mail을 통해 학습자들은 목표언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게 되고 문화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다.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 학습자들에게는 특히 e-mail을 통해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길러 줄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즉 e-mail은 목표언어를 쓰는 원어민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학습까지도 가능하게 해주는 효과적

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림-5> 인터넷 자료 (http://epals.com/)

c. IRC(Internet Relay Chatting)을 통한 문화지도

IRC(Internet Relay chatting)은 1988년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Jarkko Oikarinen에 의해 개발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채팅 서비스이다. IRC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도 전 세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림-6> 인터넷 자료 (http://eslcafe.com/)

인터넷 채팅은 실시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 주제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직접 질문을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목표문화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등에 질문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한 문화지도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인터넷 채팅은 학습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목표문화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듯 영어를 통한 대화가 생동감 있게 교환되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영어의 읽기 능력이나 쓰기 능력의 향상은 물론 영어문화권에 대한 사회문화적 지식까지 학습할 수 있게 된다.

C. 원어민을 통한 문화지도 방안

이제까지는 문화를 지도하기 위해서 매체를 이용했다면, 이와는 달리 면대면 수업에서 유용한 방법인 원어민을 통한 문화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 문화지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원어민을 통한 문화지도 방법은 협동수업(team-teaching)을 기반으로 한 수업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먼저 협동수업의 정의와 유형을 알아보고 이를 활용한 교실에서의 수업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협동수업의 정의와 유형

LaFauci and Richeter(1970)에 따르면 협동수업을 공동의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고 수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합의에 의해 한 명 이상의 교사들이 같이 협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Warwick(1971)도 협동수업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무엇

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각각의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수-학습 자료 및 전문적인 지식을 함께 공유하기로 결정한 조직 형태중의 하나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협동수업은 좁은 의미의 협동수업과 넓은 의미의 협동수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좁은 의미의 협동수업은 일본에서 1987년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본인 교사와 원어민 보조 교사가 한 팀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수업 방식을 말한다(정길정, 연준흠 1997).

넓은 의미의 협동수업은 미국에서 유래되었는데, 1950년대 후반 미국에서 역사와 문학과 같은 과목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통합해서 학습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안목을 제시해 주기 위해 둘 이상의 교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서로 협동하여 가르치는 수업 방식을 의미한다(조명원, 이홍수 1993).

원어민을 통한 협동수업의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배두본(1997)의 협동수업 유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배두본(1997)은 협동수업 유형을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간의 역할 정도에 따라 수업 분담(assistant solo-teaching), 공동 수업(co-teaching), 부분 협동수업(partial team teaching), 특활 지도 관리(extra-curricular activity management)로 분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 분담 유형(assistant solo-teaching)은 한 단원의 일정 부분을 원어민 교사에게 분담시켜 원어민 독자적으로 수업을 진행시키고 한국인 교사는 학생들과 활동을 같이하며 참여 관찰을 한다. 이와 반대로 한국인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는 원어민 교사가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으며 관찰을 한다. 원어민 교사는 주로 듣기와 말하기 영역 그리고 특히 문화내용을 지도할 때 중심이 되고, 읽기와 쓰기 영역에는 한국인 교사가 수업의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영어수업지도에 효과적이다.

둘째, 공동 수업(co-teaching)은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매시간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진행한다. 이 때 한국인 교사가 수업의 주도권을 갖고 내용을 제시하면서 설명해주며 학습과제활동에 필요한 지시를 하고 이에 대한 평가까지 해준다.

원어민 교사는 이를 참여관찰을 하면서 자료 제공자와 대화 상대자의 역할만 한다. 반면에 원어민 교사가 듣기와 말하기 수업을 진행할 때, 학습자들의 능력과 수준이 부족해 이해를 못하게 되면 한국인 교사가 접근해서 설명을 해준다.

셋째, 부분 협동수업(partial team teaching)은 한국인 교사가 영어 수업을 주도하며, 원어민 교사는 교재와 테이프를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춰 개작하고, 목표문화에 대한 다른 자료를 준비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원어민 교사는 교실을 순회하면서 학습자들이 과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특활 지도 관리(extra-curricular activity management)는 원어민 교사가 학교에서 영어 회화반, 영어 연극반, 영어 웅변반 등의 특별반을 조직해 운영하는 수업을 말한다. 이는 한 학교와 한 학급만이 아니라 여러 학교를 순회하면서 정규 교과 시간외의 활동을 도와줄 수 있다.

위와 같이 협동수업을 진행할 경우, 협동수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대부분의 이익은 학습자가 얻게 된다. 무엇보다 학습자는 원어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목표언어인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원어민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그들이 학습한 영어가 살아있는 언어라는 것을 깨닫게 되서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협동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은 목표문화와 원어민들의 가치관 등을 같이 습득하게 되어 목표문화권에 대한 인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2. 협동수업을 통한 교과서 지도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실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영어 수업은 특정한 상황을 보고 듣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실생활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과도하게 문법위주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많은 학습자들은 영어를 오랜 기간 학습하고도 외국인을 만나게 되면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학습 자료

는 당연히 교과서 일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수방법에서는 교과서를 문법위주의 읽기능력 향상만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문화가 중요한 요소가 자리 잡고 있어 교과서의 각 영역에서도 크게 강조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를 통해 문화적 요소를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화지도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협동수업이다. 한국인 교사는 지도해야 할 수업 단원의 문법이나 어휘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고, 원어민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과 role-play나 토론으로 진행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적·비언어적 요소들까지 함께 지도하는 것이다. 각 단원에 문화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으면 원어민 교사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각 단원 끝에는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를 통해 배운 문화내용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직접적으로 접하면서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다음은 현재 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교과서 중에서 문화적 내용을 담고 있는 단원을 조사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 내용을 원어민 교사와 함께 협동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학습자들의 문화인식의 수준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아래의 본문은 천재교육 출판사의 중학교3학년의 영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7단원의 일부이다.

Lesson 7. Cultural Understanding

There are different custom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For example, how would you say the date 1-9-2003? many South Americans give the answer as the first of September, 2003. They put the day before the month. But many North Americans give the answer as January the ninth. They usually put the month before the day.

If someone moves his head up and down, what does it mean to you, “no” or “yes”? Nodding the head up and down means “yes” in Western Europe and

United States, but ”no“ in Greece and Turkey. The difference only confuses the traveler, but to business people it sometimes means losing a lot of money.

What are good manners in one country are sometimes bad manners in another. Even simple gestures can have different meanings. The “thumbs-up″ sign means “excellent“ in the United States, while it is an insult in parts of Africa. Tapping the head with the index finger in parts of South America means “I′m thinking hard,″ while in Holland it means “That′s crazy.″ To point a finger at someone is OK in Canada, while it′s bad in Korea.

Greeting clients well is very important. European men and women commonly shake hands when they meet for the first time, while in Arab countries men never shake hands with women that they are not related to. In Korea, people bow to each other. People from India place their hands together, then bow their heads.

위의 본문은 각 나라마다 가지고 다른 관습들에 대해 나타내 주고 있다. 우선 미국의 날짜 읽는 법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각각의 나라마다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body language에 대해 서로 대조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내용까지 학습할 수 있게 도와준다.

두 번째로 다음 본문은 두산 출판사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의 11단원의 일부이다.

Lesson 11. What Do You Mean by That?

A Hair-raising Experience

This idiom is said to be based on a scientific fact. Scientists say people really do have hair-raising experiences when they are afraid. That is, hair does rise when you suddenly go through a frightening experience. A hair-raising experience, then, is a frightening experience.

Break the Ice

Have you ever found yourself with people you didn't know well? Maybe you were quiet and a bit uncomfortable until someone told a joke.

That person "broke the ice." It is said that this idiom began with boatmen who worked on the Thames River in London. In winter, boatmen had to free their boats from the ice so that they could begin the day's work. So "breaking the ice" today means clearing the way to get to know a person.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You're in class, and the teacher is talking. Suddenly he asks you something, but you're not sure what the question is. "Go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means to hear something without really listening to it. The teacher's words entered your head through one ear and passed through the other, so you don't remember what he said.

Lead by the Nose

A bull is a big, strong animal. It's hard to make it go to some place if it doesn't want to. But people found an easy way to lead bulls. They put a ring in the animal's nose and tied a rope to the ring so that they could move it. Today, when people are forced to do something, we say that they are "led by the nose."

위의 본문은 영어의 고유표현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내용까지 학습하게 해준다. 교사는 위에 제시된 idiom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까지 알려줌으로써 학습자들은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된다.

협동수업을 통해 교과서를 지도함으로써 학습자들은 다양한 의사소통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영어식 표현들을 직접 듣고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영미문화권의 문화적 내용들을 직접 그 나라에 가지 않고서 교과서를 통해 실제 의사소통과 연계해서 배우게 됨으로써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듯 현재 문화적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을 협동수업을 통해 원어민 교사가 지도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더욱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며, 본문의 내용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적 내용까지 지도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다.

위에 제시된 교과서 이외에도 현재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도 영미문화권의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영미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몇 가지의 교과서들 중에서 영미문화를 다루고 있는 단원을 추가로 더 발췌하고자 한다. 협동수업을 통해 교사는 각 문화 유형별로 알맞은 설명과 소집단 활동을 통한 토의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해서 목표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표-1> 중3학년 영어교과서 별 문화 유형

출판사	지학사	교학사
단원과 제목	Lesson 7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Lesson 2 Fun with Proverbs
문화 유형	몸짓 언어	언어 문화
본문 내용	We communicate with actions as well as with words. Even if we don't speak, we will still l communicate something. We are always saying something. there is some truth in the old saying,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1.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2. You Can't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 3.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All over the world, different people often have different ways of life or customs.
수업 유형	다양한 한국인의 몸짓언어와 미국인의 몸짓언어를 비교 및 토의	교과서를 통한 속담 이해와 교사의 본문 설명

출판사	교학사	새한 교과서
단원과 제목	Lesson 3 New York! New York!	Lesson 7 Future Dreams
문화 유형	나라 문화	인물 문화
본문 내용	New York! What do you know about New York? What's so special about it? Many people say New York is a city of contrast. It can be beautiful and it can be ugly. It can be friendly and it can be rude. It can be good and it can be bad. but it is never boring.	Walt Disney was born in Chicago on December 5, 1901. Walt was one of five children, four boys and a girl. when he was five years old, his family moved to Missouri, where he spent most of his childhood. From his early childhood, he showed a strong interest in reading and art.
수업 유형	도시의 일면에 대한 사진이나 인터넷을 통한 설명 및 그룹 토의	교과서를 통한 인물 이해와 추가정보에 대한 그룹 토의

Ⅳ. 문화지도에 있어서 고려할 점

A. 문화지도에 있어서의 교사의 태도

효과적인 외국어 교수를 위해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는 목표문화에 대한 교사의 태도이다. 일반적으로 목표문화권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이해와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는 목표언어가 나타내고 있는 문화를 성공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해준다.

Dunnett et al.(1986: 148)이 언급한 바와 같이 목표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이해가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the vital element which gives language courses a tone of cultural understanding is the teachers' own attitudes toward their students' backgrounds as well as toward the materials utilized.

만약 영어 교사가 목표문화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면 EFL상황인 우리나라는 매우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목표문화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 또는 목표문화의 경험 부족 등은 학습자로 하여금 잘못된 문화인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목표문화에 대한 부적합한 편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서 Rivers(1981)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Above all, it is essential that the teacher's approach to culture, whether he be foreigner or native speaker, should not be a chauvinistic one : he must overcome any temptation to try to prove the superiority of one culture over another. He is not in the classroom to confirm the prejudices of his students nor to attack their deeply held convictions.

이 때 교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우월한 나라의 문화를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학습자들이 목표문화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동경하게 되고 우리나라 문화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학습자들에게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지도가 아니고 문화내용의 객관적인 전달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 교사가 목표문화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다른 기능을 가르칠 때 문화지도를 같이 병행해야 한다. 교사는 언어의 4가지 모든 기능을 이용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문화적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목표문화에 대한 주제선택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흥미와 내적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들을 정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목표언어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학습자들과 목표문화와의 거리는 실제적인 두 사회의 거리보다는 학습자가 인식한 사회적 거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는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문화적 차이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느끼는 문화적 차이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목표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목표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교사 자신의 확고한 문화관을 정립시킨 후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를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실제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B. 문화학습에 있어서의 학습자의 태도

과거의 교과서와 교사만이 유일한 정보였던 시대에서 현대는 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급속한 변화의 정보화 시대이다. 이에 따라 교육관에 있어서도 포스트모더니즘 관점 즉 구성주의 학습관으로 변모해왔다.

교수-학습에 있어서 구성주의 관점은 지식이 교사와 책으로부터 학습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필요한 지식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떠한 지식이 학습자에게 주어졌을 경우에 학습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어진 지식을 자신의 수준과 능력에 맞춰서 재구성하게 되는 형태의 학습에 대한 관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교육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가리켜 '교육에서 학습으로의 변화'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즉 최근 교육방향의 변화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전통주의에서의 교사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학습으로 변화와 발전을 해 온 것이다.

학습은 더 이상 교사가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주입식·암기식 교육이 아니다. 따라서 학습자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 능력을 신장해야 하며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수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는 교사에 의해 제시되는 다양한 영미문화의 습득에 있어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 탐구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목표문화권의 새로운 문화적 요소들은 모국어문화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학습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능동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즉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다양한 교수자료와 매체들을 이용하여 목표문화에 좀 더 동화하려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문화를 학습한다는 것은 원어민과 같은 수준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목표문화권에 대한 지식은 학습자가 배운 내용들을 사회문화적 규범 안에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습득한 목표언어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린 마음으로 목표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V. 결 론

언어는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를 반영하는 문화의 총체적 산물로써 그 사회와는 불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각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에는 그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특징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에 함축된 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언어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목표문화에 관한 이해 없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기대할 수 없다.

EFL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로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의사소통능력 신장과 문화이해라는 두 개의 큰 목적이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영미문화권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등을 포함한 문화적 요소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와 같이 문화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화적 장애 요소들을 최소화 시킬 뿐만 아니라 목표문화권의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영어교육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인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가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문화적 요인과 영어교육에 있어서 문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문화차이나 문화적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시해줄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영미문화 지도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학습자가 문화와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은 거의 교실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교실을 중점으로 영미문화를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인 원어민과의 협동수업을 통한 문화지도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에 있어서 등한시해왔던 문화를 성공적인 영어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영미문화 학습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단순한 언어적 지식이 아

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영미문화 교육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방안들을 이 논문을 통해서 제시한다.

참 고 문 헌

교육부. (2001). *외국어 교육과정*. 서울: 대한 교과서(주).

김규연. (2006).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방안*.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지영. (2004). *인터넷을 이용한 영어 교육*. 도서출판: 민지사.

남광우, 이응백, 이숭녕. (1995). *우리말 대사전*. 삼성문화사.

박근혜. (2007). *영어(EFL) 교실에서 영어문화의 교수-학습 방안*.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은영. (2007). *원어민 영어교사 협동수업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배두본. (1997). *영어교육론*. 서울: 한신문화사.

심명호, 문용, 신문수 외. (2004). *Middle School English 3*. (주)교학사.

장영희, 김진철, 김성철, 정소영, 이경태, John Eric Feldt. (2005). *Middle School English 3*. (주)두산.

정국진, 장경숙, 최성희, 정은예, 김혜주, Richard L. Greever (2005). *Middle School English 3*. (주)새한교과서.

정길정, 연준흠. (1997). *협동수업지도론*. 서울: 한국문화사.

이도수. (2006). *문화자료를 활용한 영어교육*. 도서출판: 인터비젼.

이병민, 박기화, 한정근, 정정혜, Stephen P. van Vlack. (2003). *Middle School English 3*. (주)천재교육.

오서우. (2006). *영어수업에서의 인터넷을 활용한 문화교육지도 방안기반*.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하지훈. (2002). 인터넷을 활용한 초등영어문화지도 모형 개발. *한국영어언어과학학회 학술지논문*, 3권.

최승명. (1988).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文化敎育 要因分析.*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Benson, A. C. & Fodemski, L. (1996). *Connecting kids and the Internet : A handbook for librarian, teacher, and Parents.* 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

Brown, H. D. (199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Inc.

Brown, H. D. (1994).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Inc.

Butler, Brian. (2002). *Community Efforts in Online Groups: Who does the work and why.* New York University.

Canale, M. and M. Swain. 1980. *Theoretical Bases for Cu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Chastain, Kenneth. (1978). *Developing Second Language Skills : Theory and Practice.*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Crawford-Lange, Linda M. & Lange, Dale. (1987). Integrating language and culture: How to do it. *Theory into Practice.*

Damen, L. (1987). *Culture Learning: The Fifth Dimension in the Language Classroom.*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Disman, Milada. (1982). ESL and a new culture. *TESOL Talk.*

Dunnett, S. C., Dubin, F., Lezberg, A. (1986). English language teaching from an intercultural perspective. In J. M. Valdes (Ed.), *Culture bou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uquette, George. (1985). *Do cultural perceptions facilitate second-language acquisition?*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Gee, J. P. (1988). *Dracula, the Vampire Lestat, and TESOL.* TESOL Quarterly 22. pp. 201-225.

Goodenough, Ward H. (1964). *Cultural Anthropology and Linguistics.*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A Reader in Linguistics and Anthropology. ed. Dell H. Hymes. New York: Harper & Row. pp. 36-39

Hall, Edward T. (1959). *The Silent Language.* New York: Doubleday.

Henle, Paul. (1966). *Language, Thought, & Culture.* Chicago: The Univ. of Michigan Press.

Kluckhohn, C. (1944). *Mirror for Man.* New York: McGraw-Hill.

Krashen, Stephen. (1994). The effects of formal grammar teaching: Still Peripheral. *TESOL Quarterly.*

LaFauci, H. M. (1970). *Team teaching at the College level.* New York: Schoken Books.

Lafayette, C. Robert. (1978). *Teaching Culture*: Strategies and Techniques.

Lafford, P. & Lafford, B. (1997). Leanring and Culture in Internet Technology. In Mm. Bush(Ed.), *Technology-enhanced Language Learning.* Skokie Illinois: Natural Textbook.

Lakoff, R. (1976). *Language and Society.* A Survey of Applied Linguistics. eds. R. Wardhaugh & H.D. Brown.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 207-228.

Landar, H. (1966). *Language and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Nostrand, H. (1956). *On Teaching a Foreign Culture.* The Modern Language Journal 40. pp. 297-301.

Rivers, Wilga A.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The Univ. of Michigan Press.

Saussure, Ferdinand. de. (1996). *Cours de linguistique general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Translated by Wade Baskin. New York: Mcgraw-Hill, 1959

Seelye, H. N. (1984).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mpany.

Susan, K. (1994). *Making authentic cultural and linguistic connections.* Hispania.

Szalay, L.B. & G. Fisher. (1979). *Communication Overseas.* Toward Internationalism Readings in Cross-Cultural Communication. eds. E. C. Smith & L. F. Luce. Rowley, MA: Newbury House.

Tiersky, E. & Tiersky, M. (1975). *USA Customs and Institutions.* NY: Regents Publishing Company, Inc.

Warwick, D. (1971). *Team teaching.*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Whorf, Benjamin L. (1956).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John B. Caroll, Cambridge, Mass.: MIT Press.

Yongjae Paul Choe. (1998). *Culture in EFL Education.* Hankook Publishing Co.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영어교육전공	학 번	20058226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조애리	한문: 曺愛蔼	영문: Cho Ae-ri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해광 무지개 아파트 102동 801호				
연락처	010-9810-3752	E-MAIL: whiteaeri@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가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영문 : Effects of Understanding of the Target Culture on Improvement of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 년 7 월 5 일

저작자: 조 애 리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